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3월 3일

회 사 명 : (주) 광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최 민도
본 점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32(광천동)
(전 화)062 - 360 -1061
(홈페이지)<http://gjshinseg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담당 (성 명)최 재 휘
(전 화)062 - 360 - 123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 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9시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 932 광주신세계 9층 아카데미 다목적홀

3.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 25기 (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훈)

-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인철)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예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0년 3월 13일 ~ 2020년 3월 2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민도 (출석률: 92%)	최재휘 (출석률: 92%)	김정식 (출석률: 17%)	김형균 (출석률: 83%)	윤 판 (출석률: 100%)	이용연 (출석률: 66%)
					찬 반 여 부					
1	2019.01.18	승인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	2019.01.31	승인	2018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승인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승인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3	2019.02.19	승인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보고	2019년 1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19년 3월 19일 김정식 사내이사 와 김형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19일 윤판, 이용연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19일 위길환, 한장희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민도 (출석률: 92%)	최재휘 (출석률: 92%)	김정식 (출석률: 17%)	김형균 (출석률: 83%)	위길환 (출석률: 100%)	한장희 (출석률: 89%)
					찬 반 여 부					
4	2019.03.19	승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2019년 2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민도 (출석률: 92%)	최재취 (출석률: 92%)	김정식 (출석률: 17%)	김형균 (출석률: 83%)	위길환 (출석률: 100%)	한장희 (출석률: 89%)	
				찬반여부						
5	2019.04.19	승인	우리은행 구매카드 약정 체결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보고	2019년 3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6	2019.05.09	승인	기업어음 할인약정 및 당좌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보고	2019년 4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7	2019.06.27	보고	2019년 5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8	2019.07.18	승인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9	2019.09.27	보고	2019년 8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10	2019.10.25	보고	2019년 9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11	2019.11.21	보고	2019년 10월 경영실적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12	2019.12.26	승인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2019년 11월 경영실적 보고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형균(위원장) 윤판	2019.01.31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보고
	김형균(위원장) 윤판 이용연	2019.02.19	- 제24기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 보고서 승인	가결
			-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김형균(위원장) 위길환 한장희	2019.03.19	- 감사위원장 선임	가결
		2019.10.25	-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승인의 건	가결
2019.12.26		- 외부감사인 지정의 건	보고	
사외이사후보	최민도(위원장) 위길환, 한장희	2019.02.19	- 사외이사후보 추천	가결

위원회명	구 성 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추천위원회	위길환(위원장), 한장희	2019.12.26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변경의 건	가결

- ※ 제 24기 주주총회(2019.03.19)에서 윤판,이용연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위길환, 한장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고 김형균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 ※ 경영이사회에서(2019.03.1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길환, 한장희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2019.12.2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도 사내이사에서 위길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500,000,000	136,468,500	45,489,500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동법 시행령 제 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 ※ 2019년 03월 19일 윤판,이용연 사외이사가 퇴임하셨습니다.
- ※ 2019년 03월 19일 위길환, 한장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고 김형균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경영수수료	(주)신세계 (계열회사)	2019.01~2019.12	73	4.7
임대수입	(주)이마트 (계열회사)	2019.01~2019.12	44	2.9
몰수수료	(주)에스에스지닷컴 (계열회사)	2019.01~2019.12	26	1.7
리뉴얼 공사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2019.01~2019.12	173	11.2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신세계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9.01~2019.12	127	8.2
	상품권 수수료 수입 등	2019.01~2019.12	14	0.9
	소계		141	9.1
(주)이마트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9.01~2019.12	2	0.1
	상품매출, 임대료 수입 등	2019.01~2019.12	115	7.4
	소계		117	7.5
신세계건설 (계열회사)	리뉴얼 공사 등	2019.01~2019.12	173	11.2
	소계		173	11.2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커다란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백화점은 고품격의 매장 인테리어, 최첨단 편의시설, 소비재에서 고급의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산업으로서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련된 판매시설을 통하여 첨단 유행을 선도하고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유통산업입니다.

이러한 백화점은 지난 60년대 경제발전기부터 한국 유통산업의 중심에서 낙후된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시장 재편과 아울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로 업체간 가격 경쟁, 입지 경쟁, 서비스 경쟁 등 전반적 경쟁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업계는 대형마트 등의 출점 가속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지방 백화점을 시작으로 중·소형백화점의 시장이탈과 더불어 대형백화점위주의 시장재편을 거치면서 수년간 저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아울렛 등의 신업체의 등장으로 업체간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유통 채널의 확대 및 복합쇼핑몰 등의 新 백화점 모델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규모로 성장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백화점 업계는 30.4조의 누계매출로 전년 대비 1.3%대의 신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백화점 매출현황(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조원)	30.4	30.0	29.3	29.9	29.0
신장율(%)	1.3	2.3	△2.0	3.0	△0.2

- 자료출처 : 통계청, 「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中 백화점 경상금액」
- 2015년, 2016년, 2017년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생활 내구재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주력상품은 단연 의류 및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상품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유통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명절, 기념일 등의 GIFT 시즌이 포함된 봄, 가을, 겨울의 판매액이 여름철의 판매액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의 유통산업은 전업태간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신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이업태의 출현은 대형 백화점을 위주로 하는 시장 재편으로 중·소형 백화점의 시장이탈 및 M&A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은 시설 및 상품 고급화, 고품격 서비스력 쇄신, 보다 세분화된 CRM 활동, 첨단 과학적 마케팅 기법의 도입, 매장 인테리어 고급화 및 편의시설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잡화 등 백화점의 주력 상품인 패션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국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 재래시장 특별법: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유발비용 원인자(개발자)에게 부과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등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건축 제한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공정화,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을 지정

-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꺾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정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19년말 누계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한 1,549억원,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감소한 4,11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등이 이마트 영업양도 효과에 따라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6.2% 증가한 55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광주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실적 공시를 통해 당사의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을 매 기간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경쟁백화점은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의 지점으로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합니다. 이에 시장점유율은 부득이하게 통계청에서 제시된 광주광역시 백화점 판매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광주신세계	46.6%	44.5%	44.7%	41.3%	40.3%
기 타	53.4%	55.5%	55.3%	58.7%	59.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 2015년, 2016년, 2017년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서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의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에 있는 바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로 광산구 지역의 신흥 주거단지 확대, 송원대학 부지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당사 상권 내 유입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환

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미널 유스퀘어에 문화시설 및 영화관이 신규로 들어서면서 집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2007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출점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심의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예견됩니다.

[백화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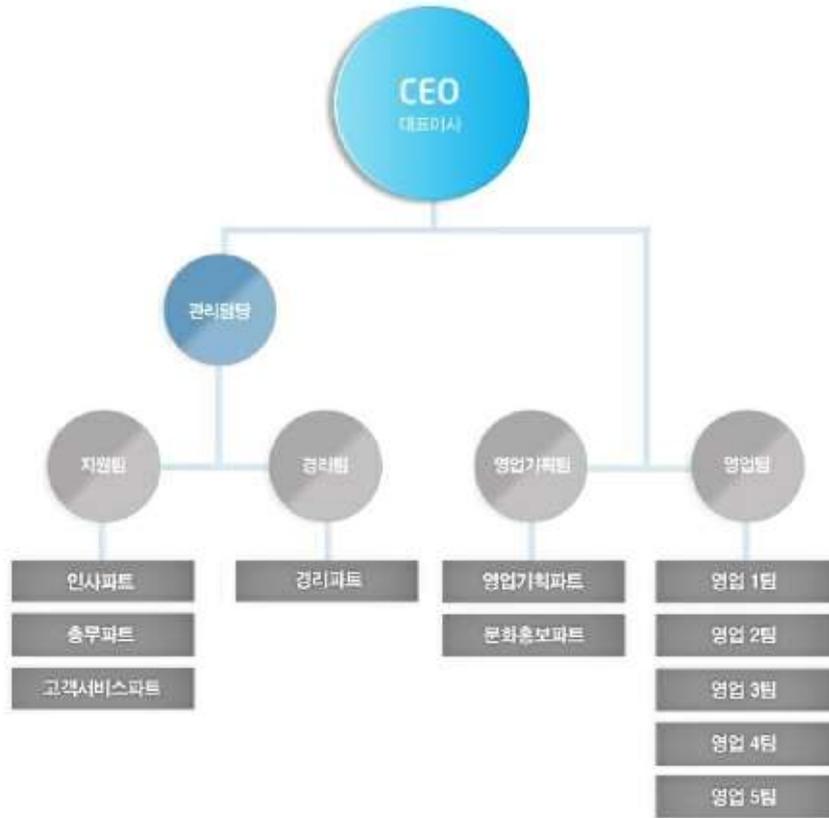
광주지역 도·소매 유통시장은 대형 백화점 (신세계, 롯데, NC)을 중심으로 아울렛 등의 이 업체와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지속된 소득의 양극화로 백화점은 고급품, 패션 장르를 강화, 다양한 문화 마케팅 전략, 고객의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케팅의 강화 및 집중을 통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을 확보하는데 힘쓰는 한편, 격조 높은 매장 분위기 연출을 통해 고품격 백화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제 25(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2019. 12. 31 현재

제 24 기 2018.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5(당) 기	제 24(전) 기
자산		
유동자산	103,160,925,305	77,504,430,758
현금및현금성자산	59,444,738,247	46,940,170,863
단기금융상품	30,0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0,810,328,108	13,645,810,594
재고자산	2,790,527,231	2,621,451,358
기타유동자산	115,331,719	10,884,329,578
매각예정처분자산	-	3,412,668,365
비유동자산	649,262,185,706	618,700,550,920
장기금융예치금	10,000,000	10,000,000
유형자산	255,366,761,717	107,893,227,420
투자부동산	17,248,447,018	-
무형자산	1,238,236,399	1,091,305,637
기타비유동채권	371,327,362,695	361,657,900,550
이연법인세자산	4,071,377,877	3,247,046,003
기타비유동자산	-	144,801,071,310
자산총계	752,423,111,011	696,204,981,678
부채		
유동부채	75,664,223,888	74,818,604,907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6,822,096,137	29,930,060,014
당기법인세부채	12,274,370,520	10,395,683,614
기타유동부채	36,567,757,231	33,738,033,083
매각예정처분부채	-	754,828,196

과 목	제 25(당) 기	제 24(전) 기
비유동부채	15,569,026,592	729,660,376
기타비유동채무	12,826,187,766	677,834,123
기타비유동부채	2,527,378,894	-
확정급여부채	215,459,932	51,826,253
부채총계	91,233,250,480	75,548,265,283
자본		
자본금	8,000,000,000	8,000,000,000
기타자본	11,832,464,492	13,375,628,000
이익잉여금	641,357,396,039	599,281,088,395
자본총계	661,189,860,531	620,656,716,395
자본과부채총계	752,423,111,011	696,204,981,67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5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5(당) 기	제 24(전) 기
매출액	154,879,495,810	135,213,362,301
매출원가	18,569,710,687	17,733,154,119
매출총이익	136,309,785,123	117,480,208,182
판매비와관리비	81,215,965,345	67,401,532,966
수취채권손상차손(환입)	(8,824,866)	9,867,034
영업이익	55,102,644,644	50,068,808,182
기타수익	1,546,392,401	24,654,539
기타비용	2,693,382,331	616,724,468
금융수익	10,611,808,391	9,599,258,561
금융원가	285,123,859	69,930,0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4,282,339,246	59,006,066,732
법인세비용	16,613,380,116	15,737,096,913
계속영업이익	47,668,959,130	43,268,969,819
중단영업이익	-	1,824,210,552

과 목	제 25(당) 기	제 24(전) 기
당기순이익	47,668,959,130	45,093,180,371
기타포괄손익	(791,123,664)	(1,303,856,454)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91,123,664)	(1,303,856,454)
총포괄이익	46,877,835,466	43,789,323,91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9,953	28,183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9,953	27,043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4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5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5(당) 기	제 24(당)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7,045,670,072	43,469,362,42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9,362,428	176,478,220
2.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1,527,822)	(496,439,709)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91,123,664)	(1,303,856,454)
4. 당기순이익	47,668,959,130	45,093,180,37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6,870,033,000	43,300,000,000
1. 사업확장적립금	41,300,000,000	38,500,000,000
2. 배당금	5,570,033,000	4,800,000,00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3,500원(70%) 전기 : 3,000원(6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5,637,072	169,362,428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5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8.01.01 (기초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557,988,204,187	579,363,832,187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기(감소)		-	-	(496,439,709)	(496,439,709)
수정 후 재작성 금액		8,000,000,000	13,375,628,000	557,491,764,478	578,867,392,478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45,093,180,371	45,093,180,371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03,856,454)	(1,303,856,454)
		총포괄손익		43,789,323,917	43,789,323,91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000,000,000)	(2,000,000,000)
2018.12.31 (기말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599,281,088,395	620,656,716,395
2019.01.01 (기초자본)		8,000,000,000	13,375,628,000	599,281,088,395	620,656,716,395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기(감소)		-	-	(1,527,822)	(1,527,822)
수정 후 재작성 금액		8,000,000,000	13,375,628,000	599,279,560,573	620,655,188,573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47,668,959,130	47,668,959,13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791,123,664)	(791,123,664)
		총포괄손익		46,877,835,466	46,877,835,46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4,800,000,000)	(4,800,000,000)
		자기주식취득		(1,543,163,508)	(1,543,163,508)
2019.12.31 (기말자본)		8,000,000,000	11,832,464,492	641,357,396,039	661,189,860,531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5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제 25 기	제 2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4,340,570,134	53,868,560,327
당기순이익	47,668,959,130	45,093,180,371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41,305,452,520	25,915,014,214
법인세비용	16,613,380,116	15,737,096,913
이자비용	285,123,859	69,930,082
이자수익	(987,316,246)	(227,988,724)
유효이자율 적용 이자수익	(9,624,492,145)	(9,374,200,977)
퇴직급여	767,823,995	1,069,580,114
감가상각비	16,723,183,809	5,656,852,804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494,697,593	-

	제 25 기	제 24 기
무형자산상각비	314,815,593	332,745,744
임차료	-	10,786,202,247
유형자산처분손실	2,357,795,449	-
수취채권손상차손(환입)	(8,824,866)	8,456,956
임대료수입	(315,706,127)	-
영업양도이익	(1,479,159,831)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516,408,876	(845,695,592)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1,292,703,834	(1,626,906,51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7,204,388)	(36,907,58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69,075,873)	(225,527,615)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907,331,988)	(319,951,327)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687,883,630)	4,747,966,351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513,153,073	1,204,346,154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15,018,675,397	256,502,367
퇴직금의 지급	(133,588,720)	(1,817,361,420)
관계사의 전입액	(4,311,868,770)	1,002,244,39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050,143,510	(482,370,150)
이자수령	927,503,035	227,988,724
이자지급	(2,319,467)	(69,930,082)
법인세납부	(15,559,025,084)	(17,297,692,900)
투자활동현금흐름	(55,381,469,108)	(658,703,917)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44,2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4,500,000,000
보증금의 감소	115,030,000	42,012,470
중단영업의 매각	4,232,007,853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74,200,000,000)	-
보증금의 증가	(16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29,455,369,694)	(5,174,014,309)

	제 25 기	제 24 기
무형자산의 취득	(113,137,267)	(26,702,078)
재무활동현금흐름	(6,454,533,642)	(7,6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	(793,9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	788,3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111,370,134)	-
자기주식의 취득	(1,543,163,508)	-
배당금지급	(4,800,000,000)	(2,0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2,504,567,384	45,609,856,41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6,940,170,863	1,330,314,45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9,444,738,247	46,940,170,863

주석

제 25(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4(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용진(지분율 52.1%)과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10.4%)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마트영업부문을 (주)이마트에 양도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3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순확정급여부채 측정에 사용된 보험수리적가정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

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수정 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정보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고 표시되었습니다. 회계정책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비교정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의 정의

종전에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주석 4.(11)에 설명된 바와 같이 리스의 정의에 기초하여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평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 시점에 당사는 계약이 리스인지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합니다. 종전 리스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은 해당 계약이 리스인지 다시 평가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의 정의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만 적용합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로서 당사는 종전에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로 이전하는지에 기초하여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하에서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당사는 종전에 부동산 및 차량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전환 시점에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부채는 당사의 2019년 1월 1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주석 3.(4).1) 참조). 리스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리스개시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함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3) 리스제공자

당사는 소유 부동산을 리스로 제공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전대리스를 제외하면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 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 경과규정의 영향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 시점에 당사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추가로 인식하고, 그 차이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환효과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1월 1일
리스자산	155,695,724
이연법인세자산	488
리스부채	(110,466)
선급비용	(155,587,274)
이익잉여금	1,528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당사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였습니다. 적용된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2.20%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1월 1일
전기말 운용리스 약정을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460,733
-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 적용	106,240
- 전환시점에 남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 적용	188,778
- 리스부채 측정에 사용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관련 비용	55,249
2019년 1월 1일에 인식한 리스부채	110,466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당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당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 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손익과 관련된 주식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저장품), 매출가격환원법(백화점의 매장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의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 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유동성위험과 운영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 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 후속측정과 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 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른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인 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 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 물	20~30년
구 축 물	20년
인 테 리 어	5년
공기구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수정 소급법을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른 회계정책은 별도로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회계정책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이 회계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리스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리스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리스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리스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측정 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리스자산을 조정하고,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2019년 1월 1일 전에 적용한 회계정책

2019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약정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에 따라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에서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됨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산을 운영할 권리나 능력을 가짐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할 권리나 능력을 가짐

·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당사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을 획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출물의 단위당 가격이 고정되거나 시장 가격과 같지않음

1) 리스이용자

비교기간에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당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 리스자산은 공정가치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최초 측정되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조정리스료를 제외하고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후속적으로 리스자산은 해당 자산에 적용 가능한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리스자산은 없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이 인식됩니다. 리스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전체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 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20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
- 사업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훈	1968.11.29.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박인철	1970.05.04.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훈	(주)광주신세계 총괄임원	2019~ 2017~2019 2015~2017	-現(주)광주신세계 총괄임원 -前(주)신세계 영등포점 점장 -前(주)신세계 의정부점 점장	없음
박인철	(주)광주신세계 관리담당	2020~ 2017~2020 2013~2017	-現(주)광주신세계 관리담당 -前(주)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 -前(주)신세계 인천점 여성팀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동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박인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이동훈 후보자]

의정부점 점장과 영등포 점장을 역임하며 각 점포를 성장으로 이끈 강력한 리더십과 실적으로 입증된 결단력, 실행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박인철 후보자]

당사 영업기획 팀장을 역임하여 전략기획, 개발, 관리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에 바탕을 둔 글로벌하고 다양한 시각을 경영에 활용하여 회사의 중장기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이사 후보자용_공시첨부용)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19 일

보고자: 이 동 훈 (서명) (인)

확인서_이동훈

(이사 후보자용_공시첨부용)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2 월 19 일

보고자: 박인철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_박인철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억원
최고한도액	15억원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0년 3월 23일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0년 3월 13일 ~ 2020년 3월 2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